

여자만 갯벌노을축제 10월로 연기



지난해 열린 여자만 갯벌노을축제에서 아이들이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축제가 오는 10월로 미뤄진다. 여수시와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축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임시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에서 당초 다음달 14~15일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7회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축제’를 오는 10월 11~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장운의 축제추진위원장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고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여

수시 소관부서와 이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회 축제를 10월에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갯벌체험에 적합한 기온과 물때와 가을나조 풍경 등이 관공요소를 잘 살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축제는 여자만의 갯벌을 무대로 한 개매기를 비롯해 바지락 캐기, 맨손 고기잡이, 뱀배타기 등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되며 지난해 역대 최대 인원인 2만755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여수산단 소규모 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

여수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가스·전기 등 각종 시설물과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여수시 산단지원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여수 화력발전 등 고압가스 인허가 및 유해물질 취급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압·액화석유·도시가스 등 가스3법 적정 준수 ▲전기사업법 적정 준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 검사 ▲중업원

안전교육 ▲안전 관련 업무전반 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신규 입주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대상 업체들이 소규모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이번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 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안전불감증 등 위기관리 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자 면담을 실시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20% 가격에 보급

여수시가 정보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한다.

시는 오는 9월 12일까지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화면낭독기와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등 68종의 기기를 지원한다. 제품가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20%를 신청자가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금의 50% 추가

로 할인한다.

신청은 여수시 정보통신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관련 홈페이지(www.at4u.or.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9월12일까지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지역내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6·4 지방선거 표발 점검

여수 성장동력 찾기 ‘박람회장 해법’ 쟁점

여수시장

인구 29만명의 여수는 전남 제 1의 산업 도시다. 특히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통해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도약하며 세계 속의 여수로 거듭났다.

그럼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30만을 훌쩍 넘겼던 인구는 10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박람회장 사후활용도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여수시장 선거에서 정당 소속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장을 거머쥔 주철현 전 광주지검장과 통합진보당 김상일 여수시의원이 나섰다. 여기에 무소속으로는 김충석 현 시장을 포함해 경제전문가인 김동채 전 여수경찰서 공동대표와 정정권 전 삼일회계법인 상임 고문, 시민운동가인 한창진 전 여수시민협 상임대표 등 4명이 출마했다.

△관전 포인트 및 쟁점·변수=최대 관전 포인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연일 시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점에 김 시장의 연일 여부다. 따라서 다른 후보는 이 부분을 이용해 새로운 시장을 외치고 있다.

쟁점은 역시 여수박람회 시설 사후 활용 문제다. 주철현 후보는 “여수 국제 해양비엔날레를 개최해 여수를 해양레저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충석 후보는 “해양복합 센터를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서는 “부채를 회수하지 말고 박람회 재단에 쥐어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진 후보는 “해양·석유화학 소형 박람회와 전시회를 연중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일 후보는 “해난사고 예방장 설치와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해 해안 관광을 활성화 하고, 정정권 후보는 “부지를 국제 석유금융 및 무역·비즈니스단지

여수시장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주철현(55)	김상일(51)	김충석(73)	김동채(56)	정정권(59)	한창진(58)
경력	·변호사 ·전 광주지검장	·시의원 ·산단 특별법제정 본부장	·여수시장	·경영인 ·전 여수경찰서 공동대표	·공인회계사 ·전 삼일회계법인 고문	·시민운동가 ·교육청 교육미래위원장
주요 공약	·시장직통 SNS신문고 ·산단기업 참여하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예술의 거리 조성	·산단 국제 6조원의 10% 지방세 전환 ·전라좌수영 복원 ·시장참여위원회 구성	·신복합 건설 ·여수~남해 터널화 ·만성리 해수욕장·배후 시설 재개발	·국가산단 리모델링 ·해양레저 완성품 제조공단 ·생산지소유 농산물 판매회 설립	·석유무역·석유금융 학과 및 대학원 설치 ·박람회장 교육테마 파크 ·구도심 재정비	·무상 시내버스 도입 ·롯데시월드 유치 ·시민권익위 구성

새정치 주철현·무소속 김충석 등 민심잡기 치열
경선 탈락 김영규 전 의장 지지자 선택도 관심

로 전환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가장 큰 변수는 상당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패한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 지지자들의 선택이다. 김 전 의장은 “깨끗한 승부”를 선언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양심이 남은 상태에서 지지자들의 표심은 오리무중이다. 특히 김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반복하고 출마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의장과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래서 나다”=김충석 후보는 지난 2010년 취임 직전에는 준비 부족으로 실패 가능성이 컸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 개최한 것을 최대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또 “당초 1426억원이던 부채를 지난 4년 동안 916억원으로 줄였다”며 “4년을 더 하면 부채를 0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신복합 건설 ▲여수~남해 한려대교 터널화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으로,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 실현 ▲러시아 타운·차이나 타운·은퇴자 도시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철현 후보는 공직생활 후 고향 여수로 내려와 장애인단체, 이장단, 산업체 노동조합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의 고문 변호사를 맡아 활동하며 바다 민심을 다져왔다. 그는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갖고 닦은 행정 경험과 인맥 등 모든 역량을 고향을 위해 쏟아내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활력이 넘치는 ‘성장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약으로는 ▲시장 직통 SNS신문고 설치 ▲산단 기업이 참여하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여자만에서 가막만,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하이킹코스 개발 등을 내세웠다.

CEO 출신인 김동채 후보는 “반칙이 난무하는 여론조사에서 승자는 의미가 없다”며 경선을 포기하며 탈락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경제적 노하우를

시장에 접목, 현안을 창의적으로 풀겠다”며 ▲국가산단 리모델링 ▲해양레저 완성품 제조공단 구축 ▲생산지소유 농산물 판매회 설립 등을 공약했다.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의 한창진 후보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으로 구성된 ‘여수 좋은 후보 추진위’에서 시장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무상 시내버스 도입 ▲롯데시월드 유치 ▲시민권익위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상일 후보는 “여수는 노동자 밀집 지역인데도 노동자에 배려가 전무하다”며 ▲산업 안전과 산단 국제 6조원의 10% 지방세 전환, 신규 채용시 지역민 50% 우선 채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통과 ▲정규직의 80% 수준의 임금과 복지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인 회계사인 정정권 후보는 석유거래소 유치 외에도 ▲여수를 관세 자유구역으로 지정 ▲전남대·한영대에 석유무역 및 석유금융 실무 학과와 대학원 설치 ▲구도심 재개발과 택지개발로 치유 주거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새정치 여성후보 내세운 5선거구 5명 치열한 각축전

도의원

여수시의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모두 6개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여성후보를 내세운 5선거구만 5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제 1선거구(돌산읍·남면·삼산면·국동·대교동·월호동)에서는 윤문철 전 전남도 교육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았고, 이에 이행우 전 여수시의원이 무소속으로 맞섰다. 제2선거구(여수·문수동)에서는 최대식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새정치민주

연합 공천을 받아 민병대 전 여수MBC(주) 편성제작팀 부장과 일전을 벌인다.

제3선거구(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동)는 서정환 전남도의원이 단독 출마,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4선거구(여천동·소라·율촌·화양·화정면)에서는 주연창 전 여수시의원과 대림산업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지낸 김덕모씨가 맞섰다.

제5선거구(쌍봉·주상·삼일·묘도동)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경미 한국환 경보호국민연대 여수지회 여성국장이 나

섰고, 이에 통합진보당에서는 최병용 민주 노총 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본부 부분부장을 내세웠다. 여기에 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당선된 김민근 전남도의원, 제조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오병선씨, 주재선 전 여수시의원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제6선거구(시전·둔덕·미평·만덕동)에서는 서일웅 전 전남도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도의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으며 최무경 전 여수시의원이 무소속으로 맞서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윤문철(65·민·전 여수교 교장) 이행우(47·무·전 여수시의원)
제2선거구	최대식(56·민·전 여수시의원) 민병대(51·무·전 여수MBC 부장)
제3선거구	서정환(54·민·전남도의원) 주연창(46·민·전 여수시의원)
제4선거구	김덕모(47·무·전 대림산업 노조 부위원장)
제5선거구	이경미(53·민·전 민주당 여성 정치참여 특위 위원장) 최병용(55·민·민주노총 화학섬유 연맹 광주전남 부분부장)
제6선거구	김민근(43·무·전남도의원) 오병선(56·무·OBS헬스케어대표) 주재선(61·무·전 여수시의원) 서일웅(50·민·전 전남도의원) 최무경(47·무·전 여수시의원)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www.yh-bus.com

여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6여향 여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TEL.062.944.5775 FAX.062.944.599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아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딱터, 산낙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로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통신판매업신고필
농협보증 에스스코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HG 해감 노가리 호프
농협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